



‘제과’로 새로 태어난 두번째 인생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케이크장식부문 한국 대표 장진근씨



한국 대표 장진근씨(부산 고려당)는 오늘도 마지팬 주무르기에 여념이 없다. 오는 11월 인도에서 개최되는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한국 대표로 출전해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다. 한미제과기술학원에서 4주간의 특훈으로 하루에 12시간이나 연습하는 강행군을 거듭하고 있지만 장진근씨는 “재미있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며 여유있는 웃음을 지어 보인다. 요즈음 그가 몰두하고 있는 부문은 마지팬. 혼자 연습할 때 가장 힘든 부분이었던 마지팬을 학원에서 꼼꼼하게 배우게 돼 그는 “지금은 마지팬이 가장 자신있는 부문”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장진근씨가 제과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한순간 그의 인생에 찾아든 교통사고 때문이었다. 24살의 건장한 청년이었던 그는 사고로 한쪽 다리가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평소 활동적이던 그가 한순간에 불편한 몸이 됐지만, 그는 스스로를 장애에 묶어두고 싶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활동적인 일을 해야겠다는 오기마저 생겼다. 그래서 찾게 된 것이 바로 제과 기술.

맘처럼 몸이 따라오지 않을 때, 남들이 자신을 나약하게 볼 때면 때론 힘들기도 했지만 제과일은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넘어 새로운 인생이었다.

그는 우선 부산 직업전문학교 제과제빵과에서 2년간 기술을 익힌 후 부산 고려당에서 현장 경험을 쌓았다. 열심히 노력해 기술을 하나하나 익힐때마다 성취감에 휩싸였고 고객들이 자신이 만든 제품을 예쁘다며 기분 좋게 사갈 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뿌듯함이 마음속에서 솟아났다. 그런 그에게 ‘장애’는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었다. 기술을 익히면서 남들이 말하는 ‘장애’로 스스로 움츠러든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동료들과 신체적으로 조금 다를 뿐, 기술에서는 전혀 뒤지지 않는다는 자신감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다.

이런 장진근씨를 독려해 장애인기능올림픽 출전까지 이르게 한 것은 부산 직업전문학교 제과제빵과 선생님들. 수업이 끝나면 학교에 남아 연습에 몰두하는 그를 보고 전국대회 출전을 권유했다. 그의 노력과 선생님의 바람 덕분인지 그는 2002년 전국장애인기능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하고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출전 자격을 얻었다.

무엇보다 그동안 자신을 도와준 분들을 위해 금메달을 따고 싶다는 장진근씨.

“나를 이곳까지 이끌어주신 부산 직업전문학교 제과제빵과 선생님들과 나에게 현장 경험 기회를 주신 부산 고려당 이사님, 좀더 넓은 배움을 길을 보여주신 한미제과기술학원 원장님, 부원장님, 그리고 저에게 가르침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능올림픽 지도위원님께 반드시 감사의 금메달을 안겨드리고 싶습니다.”

장진근씨는 좀더 열심히 기술을 닦아 자신의 점포를 갖는 것이 꿈이다. 작업대 앞에서 열심히 구슬땀을 흘리는 그의 모습에서 소박한 그의 꿈 또한 머지않은 미래가 되리라 기대해본다.

(취재·김영주 / 사진·박경배)

* 제6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전 세계 장애인 기능인들이 실력을 겨루는 제6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이 오는 11월 23~29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에 우리 대표팀은 25개 부문에 출전할 예정으로 역대 최대규모의 선수단으로 구성된다. 케이크 장식 부문은 2000년에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어 국내 대표로는 이번 대회에 장진근씨가 첫 출전한다.